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8. 8. 1. / (총 8 매)

감염병관리과

과 장

조 은 희

전 화

043-719-7120

담당자

나 경 인

043-719-7123

검역지원과

과 장

박 기 준

전 화

043-719-7140

담당자

손 태 종

043-719-7141

지속되는 폭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주의!

- ◇ 국내외 여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및 설사 등의 증상 시 검역관에게 신고, 귀가 후 증상 발현 시 ☎1339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 국내외 여행 등 여가 및 단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과 식품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여름철은 비브리오패혈증,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의 병원균 증식의 적합한 환경으로, 이러한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결과, 캄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2인 이상의 사례가 발생한 집단 건수도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p>1</p> <p>올바른 손씻기 30초</p>	<p>2</p> <p>끓인물 마시기</p>	<p>3</p> <p>익혀 먹기</p>	<p>4</p> <p>깨끗이 씻어 벗겨먹기</p>	<p>5</p> <p>위생적으로 조리하기</p>	<p>6</p> <p>설사·구토시 조리하지 않기</p>
--	------------------------------------	----------------------------------	--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②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③ 물은 끓여 마시기
 - ④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 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⑥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과 같은 비브리오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 및 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 올해 들어 필리핀 등을 여행한 후 발생한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가 전년대비 약 270% 증가하여, 해외여행 시 1군감염병을 포함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특히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은 친지, 가족 등과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 집단발생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017-2018 제1군 감염병 발생현황 >

구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2017.7	3	0	3	73	47	26	36	24	12	61	18	43	72	63	9	3,075	3,063	12
2018.7	2	0	2	193	88	105	33	30	3	154	40	114	88	77	11	1,622	1,619	3

※ 2018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 해외여행객 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② 음식 익혀먹기
- ③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 ④ 길거리 음식 먹기 않기
- ⑤ 과일, 채소는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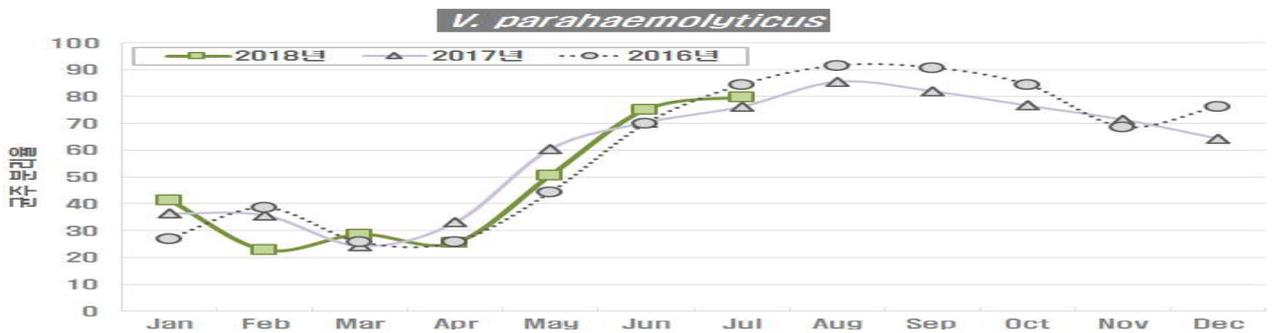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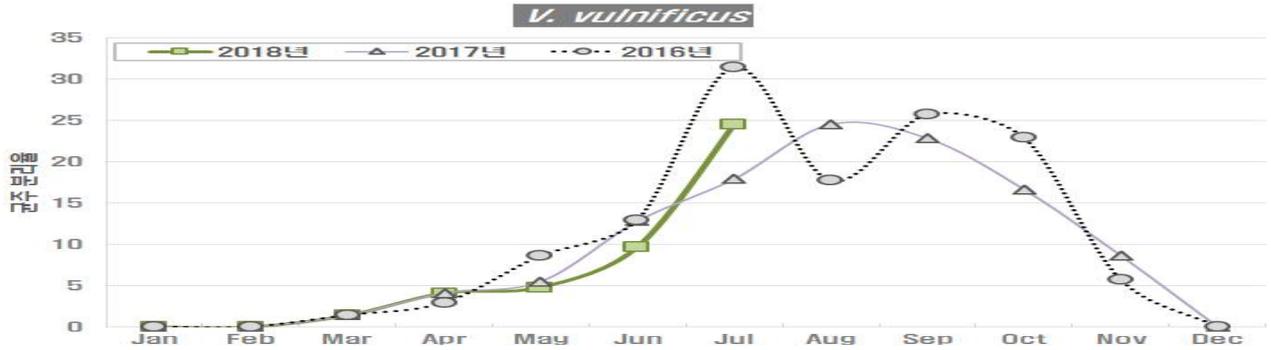
- 입국 시,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하며
- 입국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속된 폭염으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로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최근 3년간 국내 해양환경내 3종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리율 현황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및 주요 장관감염증 감시 현황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4. 동남아 등 해외여행에서의 물과 음식으로 인한 감염병예방안내.
 5.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메인 1

최근 3년간 국내 해양환경내 3종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리를 현황 (2016. 1. 1. ~ 2018.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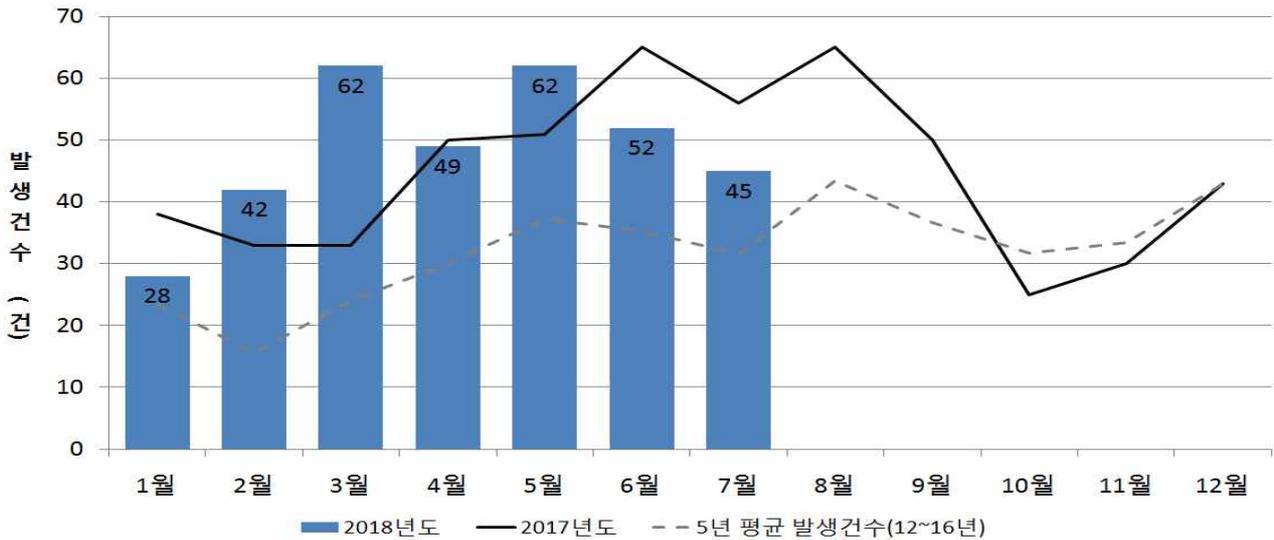


붙임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및 주요 장관감염증 감시 현황

□ 집단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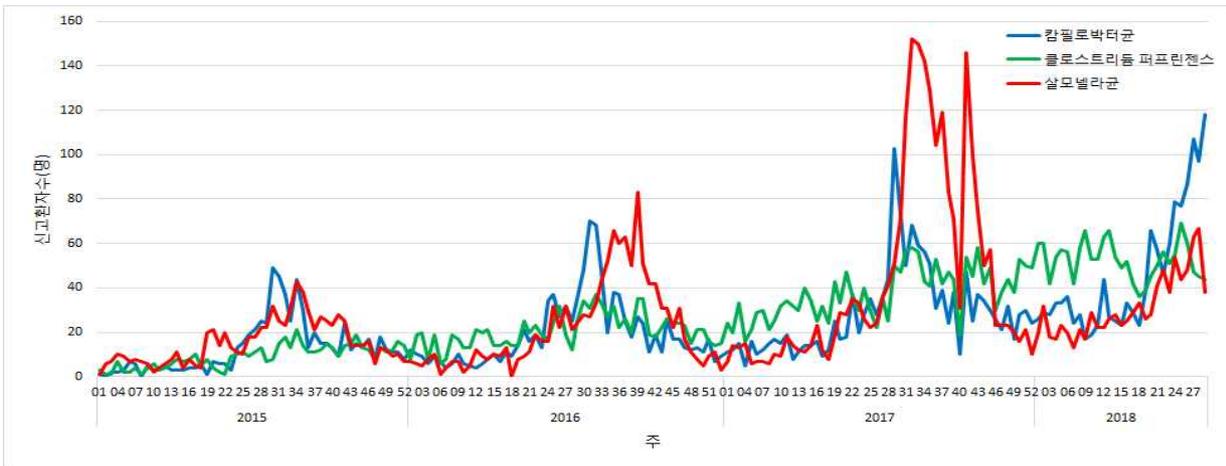
- 2018년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건은 340건으로 2017년 동기간 309건 대비 10.0% 증가 추세



< 월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2012~2018.7) >

□ 주요 장관감염증 감시현황(29주차(2018. 07. 21.) 기준)

- 세균성 장관감염증(캠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환자 감시 현황



<전국 표본기관의 세균성 장관감염증(캠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신고현황(2015~2018)>

- 본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 감시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수행기관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붙임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2018. 7. 31.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물은 끓여 마십니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 ※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 ① 음식 조리 전
 - ② 수용하기 전
 - ③ 배변 전, 후
 - ④ 가처분 교체 전, 후
 -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⑥ 외출 후

붙임 4

동남아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물과 음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2018. 7. 31.

동남아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물과 음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1. 해외에 가기 전에 준비해요!



위험국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진 상담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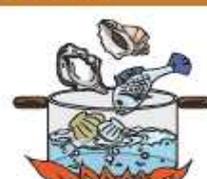


손을 씻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손소독제와 물티슈를 준비합니다.

2. 여행가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익힌 음식 먹기



과일,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길거리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음료를 마시기

3. 여행 후가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발열



복통



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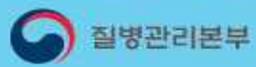


설사

1 |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2 |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를 받습니다!

3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주세요!




붙임 5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비브리오패혈증 예 / 방 / 하 / 기

2017. 5. 1.



vibrio vulnificus sepsis

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도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특히,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자, 약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환자

